각 대학 불교동아리 회원유치 이색전략 '눈길'

'명상' '봉사' 등 내걸고 전력투구
기존 회원 3배 넘는 신입 모집도

"사실 동아리 활동을 해야할 지 고민이었어요. 그런데 불교동아리에서 법회 외에도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명상 프로그램도 한다고 해서 가입하게 됐어요."(이성환 학생)

대학 입학시즌을 맞아 각 동아리들이 신입생 모집에 열을 올리는 가운데 기존 회원을 훌쩍 뛰어넘는 신입생을 유치한 불교동아리들이 있어 눈길을 끈다. 취업난 속에 동아리 참여 감소로 인한 위기 속에서도 눈부신 활약이 돋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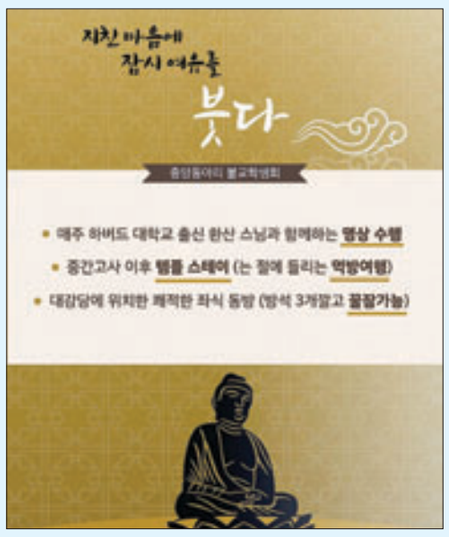
연세대 불교동아리(회장 조승제)는 이번 동아리 신입생 모집에서 25명의 신입생을 모집했다. 기존 회원이 8명인 점에 비하면 놀라운 성과다. 비결은 무엇일까. 바로 '명상'이었다. 연세대 불교동아리는 현재 하버드 출신 환산 스님이 매주 월요일 참선 · 명상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연세대 불교동아리는 3월 8일부터 9일까지 교정 내에서 열린 동아리박람회 신입생 모집에서 관련포스터도 따로 제작하는 등 이 명상 프로그램을 집중 홍보했다.

조승제 회장은 "요즘 학교에는 동아리 박람회식으로 동아리 홍보의 장이 열린다. 학생들의 종교 동아리에 대한 거부감이 있어 기독교계와 차별성을 둘 수 있는 명상과 템플스테이를 집중 홍보해 높은 호응을 얻었다"고 설명했다.

고려대 불교동아리의 경우 동아리 내 다문화 학생들을 적극 활용했다. 고려대 불교동아리(회장 신보현)는 기존 20여 명의 회원과 비등한 15명의 신입회원을 받았다. 3월 15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된 동아리 박람회동안 말레이시아와 중국 유학생들도 동아리에 대거 가입했다.



고려대 불교동아리 학생들과 대불련 지원학생들이 3월 15일 진행된 동아리 박람회에서 손하트를 하고 있다.



연세대 불교동아리의 신입생 모집 포스터.

'명상' '템플스테이'로 돌파구
'스펙 관심'에 '봉사'도 접목
홍보도 '친근' '유쾌'로 무장

신보현 회장은 "현재 회원 중 중국 등의 유학생이 6명이다. 타국에서 막 공부를 시작한 외국인 학생들의 경우 모국 선배들이 설명을 할 때 적극적인 의사를 밝히는 편이다. 함께 동아리 활동을 하는 한국학생들도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과 인연을 쌓을 수 있어 좋아한다"며 "선배 교우회가 활성화 돼 재학생들이 회비를 내지 않는 점도 다양한 신분의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동기"라고 말했다.

동국대 경주캠퍼스 불교동아리(회장 양희동)의 경우 '봉사'를 회원 모집의 돌파구로 삼았다. 기존 15명의 회원 규모에 70명이 넘는 학생들이 신규회원으로 가입했다.

양희동 회장은 "최근 취업활동에 있어 많은 기업들이 학업 성적뿐만 아니라 자원봉사 등 사회기여활동도 높게 평가하고 있다. 경주캠 불교동아리는 법회 뿐만 아니라 사찰과 복지관 등 다양한 곳에서 봉사활동을 진행 중이다. 대학 생활에 가장 소중한 인연과 추억을 만들 수 있다는 점과 일종의 '스펙'에도 기여할 수 있음을 적극 어필했다"고 말했다.

각 불교동아리를 총괄하는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측은 이런 노력 끝에 전반적인 신입회원 가입이 늘고 있다고 밝혔다.

이경수 대불련 회장은 "현재 각 동아리 신입생 모집 현황을 집계하고 있지만 지난해에 비해 확실히 늘어난 상황"이라며 "각 지역 대학 불교동아리의 경우 서울 주요대학과는 달리 인력이 모자라는 등 상황이 다르다. 대불련 중앙 차원에서 이번에 이색포스터를 제작해 지원하고, 솜사탕 기계 등을 대여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이어 "학생들의 불교동아리 활동에 대한 요구도 단순히 법회가 아닌 문화체험이 크다. 대학생 템플스테이 등을 통해 대학 불교신행의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군종교구, JSA법당 3월 31일 낙성 법회 개최

조계종 군종교구(교구장 정우)는 3월 31일 금요일 오후 2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법당 무량수전 신축불사 낙성법회를 봉행한다.

이날 낙성법회는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과 군종교구장 정우 스님을 비롯한 종단 주요 소임자 스님들과 주요부대 현역 군승, 1사단장 이종화 소장 등 부대관계자와 박정이 예비역불자연합회장, 이기흥 조계종 중앙신도회장 등 불교계 주요인사, JSA 불자장병 등 6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군종교구는 조국평화통일의 염원으로 분단의 상징인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 고려 건축양식의 전통사찰 무량수전 법당 신축불사를 발원하고 지난해 3월 24일 기공한 바 있다. 지난해 9월 6일 상량식에 이어 오는 3월 31일 드디어 불사 회향하게 된 것이다.

경기도 파주시 군내면 JSA 안보견학관 옆에 위치한 무량수전 신축법당은 법당 82.32㎡(24.9평), 종각 9㎡(2.72평)의 목조 건축물로 고려시대 수덕사 대웅전과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을 본 떴다.

또 경내에 조국통일과 세계인류 평화의 발원을 담은 625관의 '평화의 종'이 조성됐다. 무량수전 내부에는 아미타 삼존불을 모시고 나라를 위하여 전사한 국군장병들과 세계평화를 위하여 먼 타국에서 한국전쟁에 참전하여 전사한 16개국 전사자의 위패가 봉안된다.

군종교구 측은 "판문점에 연간 16만명의 내 · 외국인 방문객들이 찾는다. JSA법당에서 한국의 전통문화와 한국불교를 홍포하겠다"고 말했다. (060)700-0108

노덕현 기자



"장애등급제 · 부양의무제, 왜 폐지 돼야 하는가"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제53회 미래복지포럼

차별금지법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 장애등급제 및 부양의무제 폐지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사회복지의 역할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자승, 이하 조계종복지재단)은 4월 7일 오후 2시 영등포장애인복지관 대강당서 제53회 미래복지포럼 '차별없는 세상을 위한 장애등급제 및 부양의무제 폐지'를 주최한다. 이번 행사는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 왜 차별 금지법에 주목해야하고, 사회복지의 역할은 무엇인지 논의하는 자리다.

발제는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의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대안은 무엇인가'와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의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1호 과제-부양의무제 폐지'로 이뤄진다. 사회복지 종사자 및 관심있는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02)723-5102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대한불교청년회, 4월 15일 고려 호기놀이 재현

고려시대 부처님오신날 전통놀이 문화인 '호기놀이'를 재현하는 행사가 열린다. 연등회와 대한불교청년회(회장 김성권)는 4월 15일 오후 1시 서울 인사동에서 조계사 어린이법회 학생들과 함께 호기놀이를 개최한다.

호기놀이는 부처님오신날 즈음 아이들이 북을 두드리며 동네를 다니며 등불을 밝힐 재료를 살 쌀이나 돈을 구한데서 유래했다.

올해는 인사동과 우정국로 인근 상점을 방문해 연등회 취지를 알리고 권선으로 받은 모연금을 아름다운동행에 후원할 계획이다.

이종철 대불청 자원봉사센터장은 "호기놀이는 연등회가 불교행사를 넘어 한국전통문화이자 풍속임을 알려준다. 우리 전통에 대한 홍보와 나눔을 실천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한국불교 포교 우리가 희망이다"

조계종 예비 포교사들, 3월 18일부터 입재… 4월 9일까지 지역별 연수

조계종 포교사단(사단장 윤기중)은 3월 18일 충남 공주 한국문화연수원에서 제22회 조계종 일반 포교사 고시 1차 필기시험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연수를 시작했다. 첫 연수에는 대구 경북과 호남, 강원지역 합격자들 200여 명이 동참했다.

입재식에서 윤기중 포교사단장은 "포교사고시에 응시해 합격한 여러분들의 원력에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한편 포교사단은 오는 25일부터 26일까지 공주 한국문화연수원에서 부산, 경남, 울산, 대전, 충청지역 연수를 개최한데 이어 4월 1일부터 2일까지는 제주 관음사에서 제주지역 연수를 실시한다. 또 4월 8일부터 9일까지 한국문화연수원에서 서울, 인천, 경기지역 연수를 연다.



노덕현 기자

혜량 스님과 함께 하는 행복명상 강좌 접수

근본불교연구회 지도법사 혜량 스님은 4월 2일부터 5월 21일까지 매주 일요일 오후 2시 서울 은평구 나루명상센터에서 행복한 명상강좌 '지계 나루'를 개최한다.

스님은 이번 명상 강좌에서 △명상의 이해 △호흡명상 △자애명상 △걷기명상 △차명상 △바디스캔 △감정명상 △대화명상 등을 지도할 계획이다. 혜량 스님 명상 강좌는 한국명상지도자협회 명상전문지도사과정 시간 이수를 인정받을 수 있다. (02)353-5708 **노덕현 기자**